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1116호농장과 새로 건설된 보건산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농장에서 새로 육종해낸 강냉이와 발벼종자에 대한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올해에 수확한 다수확품종의 농작물들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팔뚝같은 강냉이와 총알같이 여문 벼이삭을 비롯한 농작물들을 환한 미소속에 보시면서 정말 희한하다고,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고 하시면서 이 농장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볼 때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농작물 시험 및 재배포전과 온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육종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1116호 농장에서 이룩한 자랑스런 성과는 우리 당의 종자혁명방침의 승리라고 하시면서 새 품종의 강냉이와 발벼를 육종해낸 일군들과 과학자, 연구사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현대적인 온실에서 시험재배하고있는 여러가지 농작물들도 보아주시며 1116호농장의 물

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주자고 하시면서 최첨단기술이 도입된 현대적인 온실을 자신께서 또 하나 일떠세워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1116호 농장에서 새로 육종한 다수확품종의 강냉이와 발벼에 대한 원종생산체계, 채종체계, 종자공급체계 등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 농장을 첨단농업과학연구중심기지로 전변시킬데 대한 문제, 과학자, 연구사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연구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 등 농장앞에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눈썹리 아득하게 펼쳐진 풍요한 농장벌을 바라보시며 최근년간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1116호농장에서 당의 령도밑에 종자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다수확품종들을 육종하고 생산에 도입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특히 농업전선에서 통장훈을 부를수 있는 강냉이, 발벼종자들을 육종해낸것이 무엇보다 기쁜 일이라고 하시면서 새 품종의 강냉이이름을 몸소 《명옥9》호라고 명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1116호농장의 일군

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종자혁명방침관철에서 기수, 선봉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로 건설된 보건산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한푼의 그림처럼 안겨오는 아담하고 정갈한 보건산소공장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공장부지를 잡아주던 날이 옛그제 같은데 공장을 몇쟁이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세웠다고, 건설자들이 당에서 정해진 날자에 공장건설을 끝내느라 그동안 수고들이 많았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산소분리기장, 기체산소충진장, 산소공급소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관리운영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보건산소공장은 비록 크지 않지만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작고도 큰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과 책임성을 최대한 높여 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한 문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며 시설물들을 애호관리할데 대한 문제, 위생학적 기준에 부합되는 질 좋은 산소가 공급되

도록 검사체계를 엄격히 세울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고 공장을 건설하면서 얻은 성과에 토대하여 여러 지역들에도 현대적인 의료용산소생산기지를 일떠세울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고많지만 보건부문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있는것은 우리의 보건의 사회주의체도의 얼굴이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체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보건을 가장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보건, 세계적수준의 보건의로 되게 하자면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보건산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청년 강국의 위용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존엄높은 공화국이 오늘은 청년강국이라는 부름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청년강국, 일찍이 있어본적도, 들어본적도 없는 이 부름속에 공화국의 위대한 오늘과 창창한 래일이 비껴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많은 나라들이 청년문제해결을 위해 자기만의 정책을 펼쳐가지만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사회의 우환거리로 되어 시대와 역사의 변두리에 밀려나 방황하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청년들이 창공에 치솟는 포부와 리상을 지니고 단숨에 산악도 떠올리고 날바다도 메우면서 시대를 뒤놓아두고있다.

조국보위를 자기의 신성한 의무로, 최대의 애국으로 여기고 군사복무의 나날을 용맹과 위훈으로 빛내가는 군인들도, 이 땅에 전쟁의 검은 구름이 몰려올 때면 용약 조선인민군 입대와 복대를 탄원해나

서는 대학생들과 근로자들도, 엄혹한 대자연의 추위도 청춘의 열정으로 밀어내며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한 주인공들도, 조선속도, 평양속도를 창조하며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새 거리를 일떠세우는데 앞장선 건설자들도, 야심만만한 투지에 넘쳐 하루를 백날, 천날맞잡이로 주름잡으며 최첨단돌과전을 벌리는 지식인들의

전열에 서있는것도, 세계의 창공높이 공화국기를 휘날리는 체육명수들도 바로 청년들이다.

이렇듯 조선청년들이 나라와 민족의 역군으로 자랑될수 있는것은 바로 위대한 령도의 손길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거목은 역세인 뿌리가 있어 든든하고 무성하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투쟁력사를 보아도 앞장에는 언제나 청년들이 서있었다고 하시면서 새 세대의 청년들이 1920년대 중엽부터 민족해방투쟁무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항일혁명사의 새 페이지를 열어놓았다는 데 대해 회고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청년들을 민족의 선봉에 서서 운명을 개척하고 전진시키는 투쟁의 선봉대, 주력부대로, 미래의 운명을 걸머진 골간부대로 내세우시고 항일의 기발아래 굳게 묶어세워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뿌리가 된 《T.C》의 조직원들도, 피어린 항일대전의 격전장에서 최후의 순간에 《조국여! 나는

그대를 자랑한다.》고 웨친 투사들도 모두가 청년들이였다. 이 역센 기상과 힘으로 조선청년들은 새 조국건설과 가렬한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위훈의 금별, 금문자를 아로새겼다.

항일의 나날 마련된 청년강국의 고귀한 전통을 곳곳이 이어나가도록 하신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20세기 말 동유럽사회주의가 출몰이 무너져가던 시기 청년조직의 이름을 아버지수령님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세기의 하늘가에 새겨주시고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청년중시, 미래사랑의 명언도 내놓으시였다.

청년들에게 백두의 넋이 깃든 주체의 해불봉을 넘겨주

시였으며 청년전위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1990년대의 김혁, 차광수들이 태어났고 자기를 바쳐 동지들을 구원한 청년영웅들과 수령의 부름, 조국의 부름이라면 산도 떠올리고 바다도 메우는 위훈의 창조자들이 자라났으며 로병들의 자식이 되고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부모가 된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이 배출될수 있었다.

오늘 청년강국의 존엄이 만방에 빛나도록 하시는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존엄은 누가 가져다주는것이 아니고 절로 생기는것이 아니다.

청년강국의 위상은 출중한 인품과 기백, 천리해안의

예지와 불길처럼 타오르는 열정을 지니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상과 탁월한 령도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젊음에 넘치신 그이의 령도아래 조국이 젊어지고 인민이 젊어지고 더욱 찬란한 미래가 밝아오는 조선은 청년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청년들의 발걸음속도가 높아야 조국의 전진속도가 빨라진다.

—백두산칼바람에 돛을 달고 대대손손 물려줄 조국의 만년 재부를 일떠세우자.

—청년들이 강성국가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하늘같은 믿음과 대하같은 사랑을 안고 오늘 조선청

년들은 사회주의조국의 영예로운 수호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하고있다.

조선청년들의 무궁무진한 힘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마련하는 추동력이며 통일강국을 앞당기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면서 우리의 청년들이야말로 새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높여야 하며 높이 올려주고싶은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청년들이며 이런 미더운 청년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큰 복이고 조선의 자랑이며 바로 여기에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강대성과 창창한 미래가 있다

고, 우리 당중앙이 가리키는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나아가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과 청년들앞에는 광활한 미래가 펼쳐져있으며 조선청년운동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의 모습에 그 나라와 민족의 오늘뿐아니라 래일의 모습이 비긴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고결한 충정으로 가슴끓이고 부강조국건설에 앞장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이런 끝끝한 청년대군을 가지고있어 나라가 강하고 우월한 정권과 제도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굳건하며

조선은 오늘은 물론이고 래일에도 영원한 김정은조선으로 세계에 그 존엄과 위용을 한껏 펼쳐가게 될것이다.

태양의 빛발속에 만발한 화원처럼 아름답고 씩씩하고 역센 조선의 청년대군을 보면서 은 겨레는 통일강국으로 이어질 밝은 래일을 략관한다.

김장일



인민에 대한 사랑! 이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천품이다.

끝없는 헌신과 로고로 이어지는 현지도의 길에서 그이께서 하시는 인민에 대한 말씀에는 무한한 애민의 정과 열이 뜨겁게 어려여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그이께서 늘 위우곤 하시는 이 한마디 말씀에도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로,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존재로 높이 내세우시는 인민관이 숭고하게 비껴여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고 훌륭한것이 차려지게 하시려는 간절한 리상과 념원이 어려여있다.

인민의 웃음과 즐거움이 그이에게 있어 최대의 행복이고 락중의 제일 큰 락이다.

지난해 1월 평양시에서 새로 건설한 버섯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새해벽두에 인민들을 위해 마련된 회한한 창조물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1년 365일이 이런 날들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하신 원수님이시였다.

인민의 행복이 넘치는 날이 이어지고 이어져 한해가 되고 그 해와 해가 그대로 인민의 기쁨이 넘치는 세월이 되게 하고싶으신 그 마음 얼마나 간절하시였으면 그이께서 마치 심중에 품으신 새해의 소원을 터치시듯 그리고 뜨겁게 말씀하시였겠는가.

세상을 둘러보면 수많은

나라의 인민들이 헤어나올 길 없는 불행과 고통속에 허덕이고있고 앞날에 대한 희망은커녕 현재의 삶에 대한 비애와 타락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걱정과 불안의 그늘속에 묻혀 살고있다.

그러나 이 나라 인민들의 삶은 어떠한가.

인민중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인민의 복락을 가꾸가시는 령도자가 계시어 흐르는 날과 달, 해와 해가 그대로 인민의 기쁨, 행복의 노래가 되어 흐르고있는것이다.

## 현지도에 비친 위인의 거룩한 세계

### 인민을 제일로 위하신다

어느 한 수산사업소건설장을 찾으시였던 날에도 그이께서는 벌써부터 현대적으로 일떠선 수산사업소를 보는것만 같고 물고기배가 기다리는것만 같다고 호랑하게 웃으시며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먹이기 위해 우리가 하고있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는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씀하시였다.

한해전 8월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처음으로 따들인 수백t의 사과를 평양시민들에게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너무 기쁘시여 대동강파수종합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먹음직스러운 사과들을 보고 또 보시며 과일들을 받아안고 좋아할 인민들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고 환하심 미소를 지으시였다.

한평생 인민의 기쁨에서

보람과 회열을 찾으신 아버지수령님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인민을 위한 일에서 더없는 만족과 행복을 찾으신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남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들을 모시듯 더 잘 받들어나가자!

이것이 그이의 인민관이고 드림없는 신조이다.

인민이 기쁘고 행복할 때면 그것이 곧 그이의 기쁨이고 행복이며 인민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으면 곧 그이의 걱정이고 아픔이다.

그이의 말씀 마디마디에 인민에 대한 정과 사랑의 고결한 세계가 뜨겁게 어려있는 것이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창건 70돐경축 연설에서도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고 하시며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지발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올것이라고 하시였다.

인민들에게 매일 기쁨과 락을 안겨주고싶으신 마음 그리도 간절하시기에 인민중중,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그이의 역대 신념이고 의지이기도 하다.

실사 몸이 찢기고 쓰러진 다 해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이나 변함없이, 사심없이 우리 인민을 높이 받들어 혁명앞에 충실할것이라고 하신 맹약을 지켜 원수님께서서는 이 땅위에 인민사랑의 별천지를 꾸러가고 계신다.

인민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숭배를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을 위한 길에서 한 몸을 다 바쳐가실 의지를 버리시며 오늘도 인민사랑의 현지도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헌신의 자욱자욱에서 인민의 복된 삶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고있는것이다.

그 길에서 울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넘치는 말씀들은 인민에 대한 사랑의 찬가,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로 끝없이 울려가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조선민족,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어오면서 대대손손 살아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돌로 갈라져 한두해도 아니고 장장 70여년 민족분열의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다.

오랜 세월 지속되어온 분열의 통을 끝장내고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는 민족대업의 앞장에 조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서야 한다는것은 오늘 공화국을 세상에 돌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빛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드림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청년들은 조국건설의 핵심력량이며 기본전투부대이다. 청춘의 열정과 투지가 용솟음치는 곳에서 기적과 전변이 일어나고 비약의 기상이 나래치게 된다.

돌이켜보면 력사의 광풍을 길들이며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공화국의 자랑찬 년대에는 자기 령도자를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한 청년들의 고귀한 피와 땀, 영웅적위훈이 깃들어있다.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실현한것도, 가렬치절 하였던 조국해방전쟁시기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하고 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한것도, 전후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천리마를 타고 질풍같이 내달려 영웅조선의 기적을 안아온것도 다름아닌 청년들이였다.

사회주의의 운명을 판가름하던 반제반미대결전의 준엄한 시기에도 조선의 청년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 사회주의조국을 결사수호하였으며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환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오늘 공화국의 청년들은 전세대들이 그러했던것처럼 자기 령도자

의 믿음이면 지구도 들어올릴수 있다는 신념과 배짱을 지니고 엄혹한 자연과의 격전속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훌륭히 일떠세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함으로써 철세의 위인들의 손길아래 자라난 새 세대 청년전위들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하시였다.

지난 8월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장에서 울려퍼진 청년대표들의 우렁찬 환호성은 그야말로 백두의 령장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천군만마와 같은 철벽의 성세를 이루고 발구름 높이 언제나 곧바로 그이의 령도만을 따르려는 이 나라 청춘들의 신념의 맹세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조선청년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면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청년들은 민족자주의 가치, 민족대단결의 가치를 높이 들고 통일애국의 길에서 뜻과 마음을 합치고 련대련합하여 투쟁함으로써 미제와 반동일세력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민족의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인 청년들을 통일조국건설의 선봉대로 불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열화같은 호소를 받아안은 북과 남, 해외의 청년들은 겨레앞에 충직하고 정의에 불타며 시련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청춘시절에 조국통일대업성취의 결승레프를 끊어야한다는 불타는 사명감에 가슴끓이고있다.

청년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그들을 통일조국건설의 믿음직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민족의 위대한 령수로 높이 모시고있기에 조선청년들의 앞길에는 불가능이란 없으며 조국통일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본사기자 리경월

본사기자 김강철

# 위대한 인민의 모습 먼바다어장을 개척한 바다의 영웅

주제51(1962)년 2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에 따라 수산물 80만고지점령을 위한 대책을 토의하는 전국수산부문의성자대회를 소집하시고 친히 대회에 참석하시였다. 대회에 참가한 청진수산사업소 드랄선 선장 김학순은 연단에 나서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먼바다어장을 개척한 경험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1961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진수산사업소를 찾으시어 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지금 수산부에서 물고기를 더 많이 잡지 못하고있는 것은 먼바다에 고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신비주의때문이라고 하시면서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사철 물고기를 잡으며 먼바다에도 대담하게 나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날 저녁 김학순이 선장으로 일하는 드랄1호선의 갑판에서 선원들이 공개당총회를 열고 년초에 결의한 3 000이 아니라 4 500t의 물고기를 잡을것을 결의해나섰다. 드랄1호선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보수주의와 경협주의, 신비주의를 짓부시고 태평양어장을 향해 떠났다. 그

들은 짙은 안개와 사나운 파도를 이겨내며 새 어장을 개척하였으며 결의한대로 4 500t의 물고기를 잡아냈다.

이 날은 김학순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수산정책의 정당성과 함께 수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이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서 가장 빠른 길이라는 그의 가르치심이 천만번 옳았음을 심장으로 체득하는 과정이었다. 김학순은 위대한 수령님의 뜻은 그 하나하나가 다 진리이며 그 뜻을 받들고 나설 때 이 세상에 못해낼 일, 안될 일이 없을뿐 아니라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게 된다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하였다.

김학순은 선원들과 함께 1962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수산물 80만t의 고지점령을 위한 투쟁에 다시금 힘차게 떨쳐나섰다.

연단에 나선 김학순은 위대한 수령님께 이 모든 사실에 대하여 보고드리였다.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토론을 들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더없이 만족해하시며 제일 먼저 격려의 박수를 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풍족하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며 《저런 동무가 바로 바다의 영웅입니다.》라고 내세워주시였다. 그리고 그에게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동해안에서 3 000t급가공모선을 비롯한 22척의 배들을 가지고 대규모적인 먼바다물고기잡이를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시면서 김학순을 그 총지휘선의 선장으로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김학순은 드랄1호선의 마스트에 공화국기발을 높이 날리며 태평양의 먼바다를 향해 떠났다.

불어닥친 폭풍과 긴 장마는

먼바다물고기잡이에 나선 어로공들의 전투에 큰 지장을 주었지만 당정책을 관철하기 전에는 쓰러질 권리가 없다는 신념을 안고 김학순은 집체적지혜를 모아 새로운 어로방법을 창안하였다.

김학순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국수산혁신자대회에서 오늘 조선사람이 다 천리마를 타고 다 영웅이 된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겠다고 하신 그 깊은 뜻을 꽃피우기 위하여 자기 배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뿐 아니라 선단의 모든 배들이 풍어기를 날리도록 도와주였다.

선단이 먼바다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이었다. 한척의 저예망선이 추진기고장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김학순은 《우리는 빈 배를 수령님께서 기다리고계시는 조국의 부두로 떠나 보낼수 없소!》라고 하면서 고장난 배를 자기 배에 달고 3 000리나 더 달려 먼바다어장까지 갔으며 그곳에서 추진기를 수리하고 물고기잡이전투에 참가하게 하였다. 그는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먼바다에 처음 나온 배들을 순회하면서 경험과 기술을 가르쳐주고 어구를 갖추어주었으며 큰 파도가 밀려들 때면 드랄선과 만능선으로 작은 배들을 둘러싸고 지켜주였다.

김학순은 1962년 한해동안에 323일이나 출어하였으며 전체에 세운 중형드랄선의 국제기록인 4 500t의 어획고를 훨씬 초과하여 5 500t의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록을 창조하였다.

1963년 3월 평양에서 전국수산부문의성자대회가 또다시 열리였을 때였다. 몸소 대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학순동무는 용감한 동무이며 바다에서 공산주의적기풍이 싹튼 동무이라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학순은 목이 짝 메였다. 그의 가슴속에는 먼바다물고기잡이에서 거두게 된 성과는 물론 수산물 80만고지를 앞당겨 점령할수 있는 역사적사건도 전적으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라는 생각이 소용돌이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대회에서 또다시 그에게 2중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시는 크나큰 영예를 안겨주시였다. 뿐만아니라 김학순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내세워주시고 인민경제대학에서 공부하도록 해주시였으며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3 750t짜리 대형선미드랄선선장으로 일하도록 한량없는 은정을 안겨주시였다.

그 사랑, 그 은정에 기어이 보답하려고 바다에서 살다싶이 하며 물고기잡이전투를 벌리던 그는 1973년 12월 뜻하지 않은 일로 현장에서 최후를 마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까운 동무를 잃었다고 몇번이나 되뇌이시면서 김학순의 장례를 잘해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 흘러갔지만 자기 영도자의 뜻은 진리이며 그 뜻을 받들 때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준 김학순은 오늘도 바다의 영웅으로 사람들의 추억속에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춘경

사람들은 2010년 태양절경축음악회무대에서 애기단풍잎같은 손으로 피아노건반을 누비던 마신아어린이를 기억하고있다. 당시 7살의 어린나이에 국내에 파문을 일으켰던 그가 13살이 된오늘은 세계를 뒤흔들고있다.

《13살 소녀의 연주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훌륭하다. 마치도 쇼팽이 환생하여 피아노를 연주하는것 같다.》 얼마전 뿔스카에서 진행된 제24차 쇼팽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에서 뛰어난

## 세계 피아노계의 별

2012년 12월 모스크바국제음악당창립 10주년경축음악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인 스페와프브가 9살 난 마신아의 손을 잡고 무대로 나왔다. 그날 무대에서 마신아가 피아노로 《하이든 피아노협주곡 레다조 3악장》, 《지을 연주하는것을 보고 흥분된 모스크바 《베유르겐슨》 음악출판사 사장은 《마신아야말로 진정한 별이다.》라고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다. 《모스크바의 명배우들》 국가실내관현악단이 출연하는이 음악회와 더불어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나선 마신아의 피아노연주실력이 로씨야음악계의 인정을 받았던것이다.

그후 2014년 10월 마신아는 도이쉴란드의 와이마르에서 진행된 제4차 프란츠 리스트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에 참가하였다.

19세기 유럽음악계의 《제왕》으로, 《피아노의 마술사》로 불리운 유명한 피아노연주자이며 작곡가였던 프란츠 리스트의 명칭으로 열린 경연에서 마신아는 지정곡인 《하이든 피아노협주곡 1, 2, 3악장》을 연주하였다. 그때 그는 2악장에서 라대조의 성격이 살아나게 부드럽게, 3악장에서는 황홀한 풍경을 그림처럼 펼쳐보이며 관현악과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듯이 폭넓은 형상적요구를 손색없이 구현하여 가장 높은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 세계음악계를 경탄시킨 피아노신동

김원균명칭음악종합대학 평양제1음악학원 학생 마신아

난 예술적기량을 보여준 마신아의 피아노연주를 보고 세계음악계가 터친 찬탄의 목소리이다. 오늘날 세계음악계의 찬탄을 받는 환상적이며 매력있는 피아노연주자로 자라난 마신아학생을 《통일신보》가 만난다.

접수를 받았다. 그의 환상적이며 매력적인 연주습씨를 두고 심사위원장과 세계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은 《가장 나 어린 참가자로서 힘든 곡들을 깊이있고 세련되게 연주하여 관중들을 매혹시켰다.》, 《지을 연주하는것을 보고 흥분된 모스크바 《베유르겐슨》 음악출판사 사장은 《마신아야말로 진정한 별이다.》라고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다. 《모스크바의 명배우들》 국가실내관현악단이 출연하는이 음악회와 더불어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나선 마신아의 피아노연주실력이 로씨야음악계의 인정을 받았던것이다.

## 천성적인 재능을 가진 어린 음악가

재능은 남다른 감수력과 관찰력, 독창적인 사고력, 상상력, 뛰어난 기억력 등의 총체라고 할수 있다. 음악에서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은 발달된 절대음감과 선률에 대한 기억력, 구상력을 가지고있다. 마신아는 뛰어난 음악과 선률에 대한 비상한 기억력, 창조적인 음악적상상력을 지니고있다. 마신아가 로씨야에서 음악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었던 몇가지 일화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수 있다. 어느날 교원이 마신아에게 쇼팽의 즉흥환상곡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듯이 폭넓은 형상적요구를 손색없이 구현하여 가장 높은

량에 제노라던 유럽의 음악전문가들도 머리를 숙이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스페와프브명칭국제기금과 《새로운 이름들》 국제기금의 수상자로 된 마신아가 여러 국제피아노경연들에서 거둔 성과는 실로 자랑할만 한것이다.

—2013년 11월 모스크바 제10차 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에서 1등상과 특별상.

—2014년 4월 제9차 라호마니노브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에서 1등.

—2014년 10월 제4차 프란츠 리스트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에서 1등상과 특별상, 프란츠 리스트작품 최고연주상.

—2016년 5월 제24차 쇼팽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에서 1등상과 특등상, 프랑스 노양시 쇼팽축전위원장명의로, 마자르 게오르기 페렌치기금제정 쇼팽작 마주르가 최우수연주상. ...

상이 화려하고 감동적이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곡이었다. 그 곡에 대한 수업을 받지 못한데다가 악보를 본적도 없는 마신아였지만 악보를 받아쥐고 즉시 피아노로 연주하였다. 연주를 끝내자

교원은 《대단한 수준이다. 나는 원래 학생들에게 4점이상의 점수는 주지 않는다. 하지만 마신아에게는 5점 1만개를 주겠다.》며 아낌없는 칭찬과 박수를 보내주었다.

언젠가 세계음악사시간에 교원이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형태로 된 피아노독주곡을 창작해올데 대한 과제를 준적이 있었는데 과제수행정형을 검열하던 교원은 마신아가 창작한 피아노독주곡을 보고 정말 높은 수준이라며 감탄해마지 않았다.

국제무대들마다에서 울려나온 목소리들을 통해서도 관중들에게 자기 감정을 전달할줄아는 능력을 가진 마신아의 특출한 재능을 엿볼수 있다.

《마신아는 자기의 연주로 관중들로 하여금 진정한 음악을 느끼게 해주었다. 심장을 틀어잡은 연원장명의로, 마자르 게오르기 페렌치기금제정 쇼팽작 마주르가 최우수연주상. ...

《마신아의 리스트연주는 유럽의 리스트가 아닌 동방의 《리스트》를 연상시켰다. 우리모두의 심장을 틀어잡은 마신아의 연주를 평생 잊지 못할것이다.》

《《바흐》도 힘든 곡인데 손색이 없고 자유곡은 정말 훌륭하다. 환상적이면서도 매력있는 연주였다.》

《10살의 어린 나이에

사람들에게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을 지니고있다는것이 놀랍다. 어른스러운 고급한 연주모습이다.》

《음악성이 넘치고 세련된 전문가의 연주를 본것 같다. 최고이다.》

《마신아는 꼭 세계적인 연주가 될것이다.》

... 복잡한 기교와 세련된 형상을 요구하는 곡들도 손색있게 연주하고 높은 기교와 재빠른 속도, 변

## 고마운 그 품이 있어

고리끼는 《사람의 천성은 불꽃과 같아 꺼지지 쉬우므로 문제는 타올라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한바있다. 아무리 천성적인 재능을 가졌다고 하여도 그 재능이 뿌리내릴 비옥한 토양이 없다면, 재능의 싹을 띄워주고 자라워 줄 따뜻한 손길이 없다면 어떻게 꽃피고 열매 맺을수 있겠나.

태어나 열달도 되기전에 벌써 음악소리만 들으면 울다가도 그치고 박자에 맞추어 장단을 쳤다는 마신아, 그의 남다른 음악적소질은 음악신동됨을 키워내는 성장유치원에서 유능한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활짝 꽃피어나 유치원에 들어간지 몇달도 안되어 《조선노래대전집》의 8 000곡을 완전히 소화하고 즉흥연주할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6살 난 마신아어린이를 몸소 만나주시실줄 어찌 알았으랴.

2009년 1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마신아어린이의 피아노연주와 청음시

화무쌍하게 바뀌는 어려운 곡들도 완전무결하게 연주하는 마신아의 예술적재능.

그의 뛰어난 음악적감각에 대해 알고싶었다. 그에 대해 마신아는 《음악적감각은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단순히 건반을 누르는 손가락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피아노와 이야기를 주고받는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창, 초견에 이르기까지 다 들어주시고 그가 창작한 20여편의 작곡집도 보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마신아어린이는 천성적인 음악적자질을 타고난 신동이라고, 앞으로 마신아를 잘 키우면 세계적인 피아노연주자가 될수 있다고 하시며 그의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 보답할 마음담아 삼가 올린 편지를 친히 보아주시고 성공하여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는 사랑의 친필도 보내주시였다. 2010년 4월에는 그가 태양절경축음악회에 출연하도록 해주시고 그의 피아노독주를 보아주시며 또다시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 뿐이 아니였다. 마신아가 전문을 넓히고 세계음악계에 당당히 들어설수 있도록 외국에서 공부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012년 5월 경상유치원을 찾으시여 마신아에 대하여 추억해주시고 그가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해주시였다.

나 어린 음악소녀의 재

능은 이렇게 싹트고 꽃피었다.

하기에 어머니조국을 멀리 떠나 낯설은 이국땅에서 공부하며 생활해나가는 나날은 절세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이어진 날과 달의 연속이었다.

그 나날 마신아는 조선을 빛내이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기 위해 매일, 매시각 작은 심장을 달구어하며 학습전투를 벌리는 속에서도 절세위인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노래 《불타는 소원을 피아노로 연주하군 하였다.

전공과목인 피아노는 물론이고 모든 학과목에 걸쳐 1등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으며 수많은 음악회들과 여러 국제피아노경연들에서 우승하고 조국의 영예를 만방에 떨쳤다.

로씨야 차이콥스키명칭 모스크바국립음악대학과 중앙음악학원, 로씨야의 여러 도시들에서 진행된 20여차례의 음악회들에 출연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이름난 지휘자들인 울라지미르 스페와프브, 알레리 게르게예브와 함께 여러차례 공연을 진행하였다. 그의 공연활동은 로씨야와 그의 조국인 도이쉴란드 등 여러 나라의 TV와 인터넷, 출판물들에 수많이 소개되었다.

은혜로운 해박속에 세계적인 음악가로 어엿하게 성장한 마신아의 어머니 서란녀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신아를 낳은 어머니도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재능의 싹을 찾아 세계적인 음악가로 키워준 품은 고마운 우리 사회주의 조국입니다. 우리 신아가 인간의 가치와 인격마저도 돈에 의해 좌우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태어났더라면 오늘과 같은 성공을 생각조차 할수 없었을것입니다.》

서란녀성의 말을 긍정하듯 마신아가 피아노로 연주하는 《인정의 세계》의 노래선률이 방안을 가득 채우며 기자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본사기자 고영숙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보다 거룩적인 애국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5개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결성되고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가 실현됨으로써 민족대통일 전선형성의 조직적토대가 마련되었다.

1990년대초 북남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주제80(1991)년 12월에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것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은 중단없이 즐기차게 전진하고있었다.

그러나 미제와 그에 추종한 남조선당국자들은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핵위협소동, 전쟁책동을 광란적으로 벌임으로써 온 겨레의 통일운동을 가로막아나섰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은 우리 공화국을 어떻게 하나 압살하기 위해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무력을 집결시키고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해나섰을뿐아니라 잊지도 않는 《핵무기개발의혹》을 구실로 공화국의 군사

### 민족대단결,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 (6)

##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강령을 제시하여

대상물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면서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최고리익을 심히 위협해나섰다.

《문민》의 탈을 쓴 남조선당국자는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수 없다고 체쳐댄 《대통령》 취임연설마저 뒤집고 외세와 《공조》하여 동족간의 충돌을 발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라는 헛된 꿈을 이루기 위해 매국배족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남조선당국자는 《자유가 없는 통일은 더욱 불안전하며 번영이 없는 통일에는 문제가 더 많다.》는 《통일무용론》을 체치면서 《남북화해협력》, 《남북연합》, 《1민족 1국가》라는 《3단계통일방안》이라는것을 운운함으로써 《승공통일》, 《흡수통일》의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이러한 사태는 북과 남의 어느 한쪽이 자주성을 상실하고 민족적립장에 서지 못한다면 북남대화도, 통일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북과 남이

다같이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여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촉진할 보다 적극적이며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공화국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핵무기 전과방지구약에서 탈퇴한다는 정부성명을 발표한 얼마후인 1993년 3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소집에 대한 공보를 발표하였다.

세계는 공화국이 이 회의를 통해 더 강경한 대응책을 제시할것으로 예상하였다.

서방의 한 통신은 《북조선의 련속적인 타격에 만신창이된 미국과 불순세력들은 북조선 철퇴고인민회의소식을 벼락이 친 때의 개구리처럼 두눈만 굴리며 공포속에 기다렸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전쟁이나 평화나, 분렬이나 통일이냐 하는 엄혹한 시각이었던 주제82(1993)년 4월 6일 공화국에서는 세계의 예상을 180°로 뒤집어놓으며 평화와 자주통일, 민족대단결

의 길을 다시금 온 겨레와 세계면전에 명시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 제시되고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전민족이 대단결할데 대한 탁월한 사상을 명시하고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할데 대한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와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할데 대한 민족대단결의 리념적기초 그리고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킬데 대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히고있다.

또한 동족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북과 남이 서로 신뢰하고 단합할데 대한 문제,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 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갈데 대한 문제

를 비롯하여 대단결의 방도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제시하고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그리념의 숭고성과 논리의 심오성, 단결대상의 광폭성과 실현방도의 현실성으로 하여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제도과 소속, 거주지역과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민족단합의 정치대강이며 조국통일의 대헌장이다.

또한 민족대단결, 애국애족의 경륜아래 민족이 있고야 계급이나 계층이 있을수 있고 민족의 자주성이 실현되여야 민족성원들의 자주성도 실현될수 있다는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대단결의 초석으로 규정한 민족자주의 강령이며 그 어떤 계급이나 계층도 자기의 리익에 앞서 민족전체의 리익을 첫차리에 놓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킬데 대한 사상으로 일관된 민족통일의 위대한 기치이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의

선포는 전쟁정경에 이른 일족족발의 위기국면을 민족단합의 정신으로 일거에 완화에로 급진시키는 일대 사변으로 되었다.

공화국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은 성명과 담화를 발표하여 10대강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10대강령을 《통일의 큰 열쇠》, 《통일의 지름길》, 《민족구원의 위대한 경륜》, 《7천만 겨레의 오늘의 좌표와 래일의 휘황한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민족통일의 대강》이라고 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해외동포들도 이 강령을 두고 《온 겨레를 통일로 부르르는 화해와 단합의 기치》, 《애국애족의 강령》이라고 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떨쳐나섰다.

참으로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통일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민족단합의 총서이며 통일대강인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제시됨으로써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을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더욱 굳게 묶어 세울수 있게 되었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력사적투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본사기자 현은경

## 민족의 통일대회합은 기어이 성사되여야 한다

지난 6월 공화국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기 위하여 조국해방 일흔한돛을 계기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것을 제안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공화국은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개최를 위한 북측준비위원회를 조직한데 이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의 명의로 남조선의 당국, 정당, 단체 및 개별인사들에게 공개편지를 보내었다.

남조선과 해외의 겨레들도 공화국의 통일대회합개최제안에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주로총, 《한국로총》, 전국농민회총련맹, 청년련대를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

층 단체들과 인사들은 련석회의 개최제도가 조선반도에서 날로 높아가는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한 폭넓은 정치협상회의, 가장 정당한 통일제안이라고 하면서 이를 적극 지지환영하는 기자회견들을 진행하고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미동포중앙부지역련합회, 재미동포동부지역련합회들은 대변인담화와 성명들을 발표하여 공화국의 련석회의개최제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련석회의의 성공적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독 박근혜페당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공화국의 전민족통일대회합조치로 달아오른 겨레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있다.

남조선보수페당은 공화국의 련석회의제안이 발표되자 《적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선전략》이니, 《분렬과 남남갈등을 조

장하는 전술》이니 하며 이를 무작정 반대해나섰다. 또한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추진되여온 올해의 6.15민족공동행사를 끝끝내 가로막는 반통일적당동을 서슴없이 감행하였으며 그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가 북남실무접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현 북남관계를 구실로 신청을 전면거부해나섰다.

남조선보수당국의 《북인권법시행》을 비롯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동족대결을 끝없이 추구하는것이다. 외세와 야합한 남조선보수페당의 《싸드》 배치강행책동 역시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전쟁을 불러오는 무분별한 망동이다.

해외의 각계층속에서는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책동을 강하게 규탄하고 공화국의 통일대회합개최제안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나오고있다.

각 지역별 해외준비위원회들과 동포조직들은 《자주평화통일련석회의의 성사, 성공시켜 민

족의 생명과 안전을 영구히 지켜내자》, 《련석회의 파란내려는 반통일매국노 박근혜를 규탄한다》 등의 성명, 호소문을 련이어 발표하여 보수페당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통일대회합을 기어이 성사시킬수 있는 의지를 표명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남조선에서는 련석회의추진기획단을 비롯한 각계단체들이 당국에 련석회의제안을 받아들일것을 강하게 압박해나서고있다.

남조선 각계에서는 《싸드》와 같은 커다란 재앙거리를 끌어들이며 정세를 격화시킬것이 아니라 북과의 대화와 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들이 날로 높아지고있다.

지금 박근혜페당이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동족대결과 전쟁의 길로 질주하고있지만 남조선인민들이 손에 든 분노의 초불은 이제 정벌의 불길로 되어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박근혜 《정권》에 준엄한 심판을 내릴것이다.

김연희



### 시 조국이어 밀어다오

김 송 립

이보다 큰 믿음 어디 있으랴 이보다 더 큰 사랑 어디 있으랴 아, 청년들의 뜻깊은 대회합에 해외청년 우리를 불러 크나큰 힘을 안겨주신 원수님	시시각각 전쟁의 불길 조국의 하늘가로 밀려들 때면 이역의 하늘은 푸르러도 마음엔 중오의 불 타올랐고 통일의 벽찬 환희로 조국이 끓 을 때면 격동속에 잠 못 든 밤도 우리에게 있노라	모습 떠받드는 초석이 우리 청년들 되 리라 민어다오, 조국이어 통일을 위해 피와 땀 바쳐야 한 다면 우리 해외청년들도 불러다오 분렬의 세월 물리치고 안아올 통일 조국 통일조선의 청춘으로 뿔뿔이 들어 서리라
조국의 자주적통일 조국의 융성번영 위한 애국위 업에 특색있게 이바지하여야 한다신 원수님의 열렬한 그 호소 해외청년 우리들 가슴 세차게 높 뛰게 하노니	비록 이역에 흩어져 살아도 어머니조국의 운명은 우리 해외청년들의 운명 어머니께 다하는 본분과 도리 어찌 조국의 청년들과 다를바 있 으랴	아, 사랑과 믿음에 보답이 없다면 그 어이 청춘이라 원수님 부르신 통일의 대통령로 내 나라의 부강을 위한 진군로로 해외청년 우리도 나섰다 우리에게 피끓는 청춘의 심장이 있다
머나먼 이역에 산다고 어찌 분렬에 몸부림치는 조국 의 아픔 우리들의 뼈저린 아픔 아니라 백발을 인 아버지 어머니들이 천만번 당부하는것도 조국통일	조국의 융성번영 통일에국위업에 온 해외동포사회가 뭉어번지게 우리 청년들 불씨가 되리라 강국으로 치솟는 조국의 장한	

###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청춘의 열정을 바쳐나갈것이다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강조

김현일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  
원장이 조선청년들을 통일  
조국건설의 선봉어로 불러  
주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의 열  
화같은 호소를 지지하여 담  
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지금 전체 재일조  
선류학생들은 북과 남, 해  
외의 전체 조선청년들이 청  
춘의 피끓는 심장을 다 바  
쳐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  
리를 앞당겨나갈것을 호소  
한 김일성-김정일주의청  
년동맹 중앙위원회 호소문  
을 흥분과 격정속에 받아안  
았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적대세력들과 그에 아부추  
종하는 남조선역적페당에  
의하여 최악의 위기에 직면  
한 조선반도정세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타개하고 자  
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  
가기 위한 판가리싸움에서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사명  
을 다하러는 조국청년들의  
애국애국의 호소를 전폭적  
으로 지지찬동한다고 담화  
는 밝혔다.

담화는 청년들이 앞장서  
야 시대가 전진하며 조국통  
일의 청년전위인 청년들의  
투쟁에 통일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새 세대 재일조선류학  
생들은 백두의 천출명장  
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통일의 향도성으로, 조선  
청년운동의 위대한 령도자  
로 받들어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변함없이  
들어쥐고 우리 민족의 숙원  
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  
한 투쟁에 청춘의 열정을 깡  
그리 바쳐나갈것이라고 담화  
는 강조하였다.

재일조선류학생들은 북  
과 남, 해외의 각계층 청년  
단체들과 청년들이 참가하  
는 조선청년통일대회합을  
실현하여 통일의 대통령로  
맨 앞장에서 일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라  
고 담화는 피력하였다.

본사기자

# 천하무도한 정치군사적도발로 초래될 것은 최종적파멸로 이어질 무자비한 핵세레뿐이다

##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우리의 핵탄두폭발시험을 결코 감행되는 적대세력들의 극악무도한 특대형도발광란으로 조선반도정세는 각일각 최악의 폭발직전으로 치닫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마치 워싱턴이나 서울의 한복판에 핵탄이 떨어지거나 한것처럼 법석 고아대면서 유엔을 내세워 그 무슨 《언론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고 《북의 숨통》을 완전히 막기 위한 고강도 제재를 취하겠다고 떠들어대는 한편 우리에게 대한 선제적인 군사적타격까지 공언하며 위협과 공갈의 도수를 극대화하고있다.

그 맨 앞장에서 미친개무리마냥 지랄발광하고있는것이 박근혜역적패당이다.

우리의 핵퇴성에 혼비백산하여 해외구걸행각도 채 마치지 못하고 허겁지겁 청와대로 돌아온 박근혜적은 매일같이 역겨운 모의관을 벌려놓고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걸고드는가 하면 《국가비상사태》선포니, 《확고한 보복응징태세》니 하는 히스테리적발작으로 줄게들을 무모한 반공화국도발에 내몰고있다.

괴뢰군부강패들은 지금 우리의 핵과 미싸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그 무슨 《3축타격체계》 수립계획과 《대량응징보복작전계획》이라는것까지 공개하며 《북수뇌부를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느니, 《평양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느니 하는 호전적인 망발까지 꺼리낌없이 췌쳐대고있다.

사태의 엄중성은 이러한 특대형도발계획이 이미 실행단계에 옮겨지고 있다는데 있다.

괴뢰패당은 미국과 야합하여 《B-52》와 《B-1B》, 《B-2》 핵전략폭격기편대들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핵전략자산을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전개하고 10월 중순부터는 미핵항공모함 《로널드 레간》호를 주축으로 하는 핵항공모함타격전단까지 조선서해와 남해에 끌어들이어 우리 수뇌부를 정밀타격하는 련합훈련을 감행하려고 획책하고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온갖 치떨리는 특대형군사적도발망동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폭발하고있으며 천백배로 무자비하게 보복할 징벌의지는 하늘끝에 닿고있다.

우리가 지금껏 국가핵무력강화를 위한 중대조치들을 다계단으로 련속 취해온것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한 전대미문의 정치경제적 압박과 군사적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정당당한 선택이었다.

이번에 우리가 핵무기병기화의 가장 높은 단계인 핵탄두폭발시험을 단행한것도 《체제붕괴》와 《수뇌부제거》를 공공연한 목표로 하여 감행되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더는 용납할수 없는 최절정에 이르렀기때문이다.

우리로 하여금 그토록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핵무력의 최종완성을

위한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떠민 미국과 괴뢰패당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은 오늘의 극적인 사태발전앞에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핵탄두폭발시험성공을 두고 마치 마른 하늘에 생벼락이나 맞은듯이 길길이 날뛰며 천하무도한 도발망동에 광분하고있는것이야말로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무도불측한 날강도짓이 아닐수 없다.

지금 우리 천만군민은 우리 사상, 우리 제도를 부정하고 끝까지 말살하려고 온갖 못된짓을 다하다 못해 감히 우리의 생명이고 존엄인 혁명의 수뇌부까지 무엄하게 걸고드는 불구대천의 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치를 떨고있다.

우리 로동계급은 감히 태양을 향해 샷대질을 해대는 박근혜년을 쇠장대로 찍어 이글거리는 주체철용광로에 처넣겠다고 떨쳐나서고있으며 사회주의협동농의 농민들은 시퍼런 낫날로 만고역적의 목을 썩둑 베어 판개용수저에 처넣겠다고 버르고있다.

피끓는 우리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청와대에 달려가 원수들의 더러운 몸통아리에 복수의 총창을 치바겠다고 웨치고있으며 화성포병들을 비롯한 인민군장병들은 도발의 본거지들에 즉시적인 핵타격을 가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본매를 보여주자고 산악같이 일떠서고있다.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고안자이고 집행자인 미국과 그에 덩달

아 춤추는 일본을 비롯한 어중이며 중이들, 공정성을 잃고 정의를 짓밟으며 주대없이 높아대고있는 유엔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도 하늘에 닿고있다.

사태는 험악하게 번져지고있으며 말로써는 수습하기 어려운 마지막한계점을 넘고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수호를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이 시각 불의와 추호도 타협할줄 모르는 전체 조선인민의 정의로운 립장과 의지를 대변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세기를 이어오며 반공화국제재와 압살, 침략과 전쟁책동에 미쳐날뛰는 극악무도한 도발자들을 임의의 순간에 마음먹은대로 타격하고 씨도 없이 짓밟개버릴 모든 준비가 다 되어있다.

우리 공화국이 칠것은 다 쥐고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최종판문까지 통과한 오늘에 와서까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며 힘으로 압살해보겠다고 덤벼드는것이야말로 쏘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것이나 다름없는 자멸적망동이다.

박근혜패당과 괴뢰군부호전광들은 어제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눈앞의 상대를 똑바로 보아야 하며 미국이나 일본을 등대고 미련하게 놀아대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이미 기울어진 기둥이며 일본은 침몰하는 섬나라이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그 무슨 《체제붕괴》와 《평양석권》을 노린 《참수작전》에 진입하려

는 사소한 징후라도 보인다면 그것은 비록 우리가 원했던것은 아니지만 핵탄두를 만장약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에 대한 즉시적인 발사명령으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진짜전쟁맛, 불맛이 어떤것인지 알지도 못한채 감히 《평양초토화》니 뭐니 하고 췌쳐대는 박근혜는 잘못놀린 세치 혀로 불려들인 우리 핵탄두가 서울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고 초토화할수 있다는 몸서리치는 진실을 고통스러워도 인정해야 한다.

아무리 박근혜가 미국을 하내비처럼 떠받든다고 해도 그들이 입버릇처럼 외우는 《핵우산》은 이미 우리의 핵보검앞에 맥을 추지 못하게 되어있다.

더우기 《용도폐기》된 주구따위 나 건져주겠다고 목숨내맡 상전이 아니라라는것쯤은 알고 헤덤비는것이 좋을것이다.

그 어떤 제재도, 도발도, 압박도 우리의 당당한 핵보유국지위를 허물수 없으며 천하무도한 정치군사적도발로 초래할것이란 최종적파멸로 이어질 무자비한 핵세레뿐이다.

우리의 국가핵무력은 나라의 최고존엄과 리익을 보위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사명을 다할것이며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 기여할것이다.

주제 105(2016)년 9월 13일 평양

지난 13일 남조선상공 한만큼 생산할수 있게 되어 미국의 핵전략폭격기 《B-1B》 두대가 날아들었다. 공화국의 핵탄두폭발시험을 《도발》로 양작전지역의 미군기지, 북부력시위》라는 명목으로 이 핵폭격기가 경기도 오산상공을 지나간 직후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과 남조선군 합참의장이라는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북의 군사적도발을 응징》 하겠다느니 뭐니 하는 폭언도 늘어놓았다.

미국의 핵전략폭격기들의 조선반도상공비행은 새삼스러운것이 아니다. 지난 시기에 도 미국은 췌하면 북침 핵전쟁연습과 그 구실로 《도발》을 구실로 핵전략폭격기들을 남조선상공에 출동시켜 공화국을 위협하였다. 지금 미국은 다음달에는 핵항공모함을 조선반도주변해상에 들이밀어 공화국을 위협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있다.

하지만 미국은 오산하고있다. 핵전략폭격기나 핵항공모함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것으로 위협해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것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다.

이번에 진행된 핵탄두폭발시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공화국은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대로 필요

장래한 폭음을 올린 공화국의 성공적인 핵탄두폭발시험에 지금 남조선의 정세는 물론 군부까지도 마른 하늘에 생벼락이나 친듯 신경을 도사리며 야단법석이고있다.

공화국의 강위력한 핵퇴성에 질겁한 박근혜는 해외구걸행각도중 청와대로 급히 돌아와 동족을 해칠 역겨운 모의관을 벌려놓다 못해 《국가비상사태》선포니, 《확고한 보복응징태세》니 하는 대결하담으로 줄게들을 무모한 정치군사적도발소동으로 내몰고있다.

이에 편승한 남조선호전세력들은 공화국의 핵과 미싸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그 무슨 《3축타격체계》 수립과 《대량응징보복작전계획》이라는것까지 공개하며 《북수뇌부를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느니, 《평양을 지

도상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느니 하는 호전적인 망발까지 로골적으로 췌쳐대고있다.

한편 박근혜 《정권》은 미국과 야합하여 핵전략폭격기편대들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핵전략자산을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전개하는 한편 오는 10월 중순부터는 미핵항공모함 《로널드 레간》호를 주축으로 하는 핵항공모함타격전단까지 끌어들이어 공화국의 수뇌부를 정밀타격하는 련합훈련을 감행하려고 획책하고있다.

강영성

도상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느니 하는 호전적인 망발까지 로골적으로 췌쳐대고있다.

한편 박근혜 《정권》은 미국과 야합하여 핵전략폭격기편대들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핵전략자산을 남조선과 그 주

도상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느니 하는 호전적인 망발까지 로골적으로 췌쳐대고있다.

이것은 공화국의 비약적인 핵무력강화발전에서 절절한자들이 부리는 한갓 허세이고 정신분열증의 발로이다.

사실 공화국을 핵보유국으로 떠민것은 미국과 그 추종하여 온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다.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할데 대한 공화국의 원칙적이고 지속적인 제의를 목살

하고 미국이 반공화국제재와 압박, 군사적위협소동에 매달린 결과 공화국은 부득불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대로 필요한만큼 생산할수 있게 되였으며 공화국의 핵억제력은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

하였다. 조선반도 주변 국가 여론들도 《미(한)이 제멋대로 조선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작은 나라 정권들을 거칠게 제거하지 않았다면 평양이 핵무기를 발전시키려는 동기가 이렇게 강력하지 않았을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오늘에 와서 《현실적인 핵위협》이니 뭐니하며 아무제기를 치는것이야말로 제손으로 제눈을

찌른자들의 꼴불견이 아닐수 없다.

공화국은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도발광기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 무슨 《용정보복》, 《선제타격》기도를 조곰이라도 보인다면 그 순간에는 도발의 본거지들이 정의의 핵세례를 받아 재가루가 되고마는 순간이 될것이다. 아무 맥도 못추는 상전의 《핵우산》을 붙잡고 동족압살을 노린 적대행위에 계속 매달린다면 박근혜 《정권》에 차례질것은 단호한 민족의 징벌뿐이다.

한현정

### 핵전략폭격기가 날아온다 해나 :



세론

# 《새누리당》과 호남

최근 남조선의 광주가 여론의 조명을 받고있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여야당의 대표들이나 다음기 권력의 자리를 노리는 이리저리한 인물들이 저저마다 광주행에 열을 올리고있으니 말이다.

이것이 진보를 대표하는 호남지역민심을 얻기 위한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야권의 《전당 지지발》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새누리당》이 얼굴을 들이밀며 나를 지지해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다.

얼마전 호남지역을 찾은 이 당의 《대표》는 《앞으로 호남의 사랑을 얻기 위한 무한대의 노력을 펼칠것》이라느니, 《〈새누리당〉도 변신과 변화를 이룩하겠다.》느니 하며 별의 별 갑언리설을 다 늘어놓았다. 《새누리당》이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새만금간석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당에서 지원한다고 공약하고 이에 당국이 《추가경정예산》에 새만금도로건설과 관련한 예산으로 314억원을 배정할것도 이 지역민심을 나꿔채려는 알은 수가 깔려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알은 수

가 호남의 민심에 과연 통하겠는가 하는것이다. 이 지역에는 광주의 정신, 호남의 정신이라는것이 있다. 전두환군부독재에 맞서 시민들이 영웅적인 피의 항쟁을 벌인 민주화의 전통을 이어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안아오는것이 바로 호남의 민심이 대대로 이어온 광주의 정신이라고 할수 있다.

하다면 《새누리당》과 광주정신이 어울리는가. 어울리지는커녕 정반대이다.

《새누리당》의 역대 전통은 파쇼와 매국, 동족대결과 반통일이다. 그것은 현 박근혜 《정권》하에서도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

《유신》독재가 부활하여 사회의 모든것이 파쇼화되고 민주와 통일을 요구하고 지어 집권층의 눈에 거슬리는 자그마한 요소도 짓밟히고 탄압당하는 남조선의 살벌한 현실은 광주를 《피의 목욕탕》으로 만들었던 전두환군부독재시기의 그 때를 떠올리게 하고있다. 정치적적수제거를 위해 1980년대초 《김대중내란 음모사건》을 꾸며내고 살해하려고까지 한 군사 강대들처럼 저들의 더러운 권력야욕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독재권

력의 희생물로 만든 악한의 무리들이 바로 《새누리당》을 비롯한 현 집권세력이라는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영웅적인 광주봉기의 나날 거리와 집회장들에서 울리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노래가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광주의 넋을 짓밟으며 권력을 또다시 차지한 첫날부터 리명박도 무색케 할 구악한 동족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총파산으로 몰아간 대결광이 박근혜이고 그의 《새누리당》이다.

제비가 한마리 왔다고 해서 봄이 오는것은 아니다.

전라도래생이 《대표》로 되였다고 해서 현재의 《새누리당》이 호남이 바라는 새로운 당으로 변화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상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 독주의 뿌리에서는 독초가 계속 돋아나기마련이다. 《새누리당》은 갈데 없고 변할 수도 없는 파쇼당이고 이 땅에 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동족대결당에 지나지 않는다.

대중의 눈은 언제나 현명한 법이다. 광주의 민심, 호남의 민심은 썩은 《새누리당》의 정체를 지금도 푹푹히 간파하고 있다.

김철호

# 남조선과 지역의 재앙거리—《싸드》

미국이 남조선에 끌어들이려는 《싸드》가 날이 갈수록 남조선인민들의 거세찬 반대배격에 부닥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싸드》배치가 결정된 후 경상북도 칠곡군과 경기도 평택시에서부터 시작된 《싸드》반대투쟁은 경상북도 성주군이 《싸드》배치지역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성주군은 물론 김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를 비롯한 주요도시들과 경상남도, 남조선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 《〈싸드〉 배치지 전구행동》, 《〈싸드〉 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성주〈싸드〉배치철회 투쟁위원회》, 《〈싸드〉 배치반대 김천투쟁위원회》, 《〈싸드〉 배치반대 평택대책위원회》, 《〈싸드〉 원주배치반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수많은 투쟁단체들이 결성되고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종교인, 가정주부, 지방자치단체관리, 지역의회 의원 등 각계층이 함께해나서고있다.

또 조선반도 주변나라들의 정부와 언론들도 미국이 남조선에 배치하려는 《싸드》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위험요소라고 하면서 《싸드》배치계획을 당장 철

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이처럼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주변나라들까지 《싸드》를 결사반대하고 있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남조선에 배치되는 《싸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실현에서 핵심적요소라는것은 이미 언론들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다. 미국은 남조선에 배치하려는 《싸드》를 주일미군기지와 태평양지역 미군기지, 나아가서 미본토와 련결시켜 이미 유럽 지역에 전개된 미사일방위체계와 함께 전 지구적 범위에서의 미사일방위체계를 완성하려 하고있다.

또한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싸드》배치를 통해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을 구축하고 남조선을 확고한 방패막이로 만들어 유사시 미본토에 대한 타격을 막아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

남조선에 《싸드》가 배치되는것은 결국 미국이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전체에 엄청난 재앙을 몰아올 북침핵전쟁 도발을 위한 서막이라고 할수 없다.

한편으로 미국은 《싸드》배치를 통해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여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으려고 하고있

다. 또 앞으로 미국이 동북아시아제패를 위해 제2, 제3의 《싸드》를 계속 들이밀어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극단으로 몰고갈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이처럼 《싸드》가 엄청난 재앙만을 가져다줄 것이 자명한 일인데 어찌 남조선인민들과 조선반도 주변나라들이 반대하지 않겠는가.

남조선인민들의 생명과 배치지주변지역의 환경문제를 놓고보아도 《싸드》는 화근덩이이다.

우선 일단 유사시 《싸드》배치지역이 선침으로 초토화되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주변나라들을 겨누는 《싸드》때문에 남조선은 대국들의 패권 디서 날아올지 모를 미사일의 타격과녁이 되게 된다. 거기에다가 평상시에도 《싸드》는 인체와 주변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는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산한다.

《싸드》배치지로 먼저 발표되던 경상북도 성주군주민들과 현재 배치후보지로 거론되는 어한 폴프장에서 가까운 김천시주민들이 격렬한 반대투쟁을 벌리는것도 《싸드》가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것과 함께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으려고 하고있

때하기때문이다.

《싸드》는 비용측면에서도 남조선인민들에게 파충한 부담을 들씌우는 《괴물》이다.

미국이 《싸드》를 미군기지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떠들고있지만 사실으로는 《방위비분담금》을 더 짜내어 그것을 리용할것이라는것은 남조선여론의 일치한 평가이다. 남조선당국이 《방위비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남조선강점 미군에 섬겨바치는 천문학적액수의 돈은 인민들의 혈세이다. 거기에다가 새로 선정하는 배치지역의 땅을 사는데도 1 000억원이상의 《예산》이 들어갈것으로 보고있다. 그 《예산》도 결국은 인민들의 혈세이다.

또 남조선의 《안보》불안으로 인한 유형무형의 정신적 및 경제적피해와 대외적인 경제문화적 보복과 압박 등 상상하기조차 힘든 막대한 후과가 초래될것이다.

이처럼 인류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었다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싸드》야말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린하고 인간의 생명과 환경에 파국적후과만을 가져올 특등재앙거리이다.

정기혁

# 제재를 비웃는 핵무력완성의 측포성

얼마전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공화국의 핵탄두폭발시험과 관련하여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열렬한 지지찬동을 보내고있는 속에 박근혜당이 입에 게저품을 물고 날뛰고있다.

박근혜는 핵탄두폭발시험소식이 전해지자 불에 덴 초처럼 필쩍 뛰면서 해외구걸행각도 채 마치지 못하고 청와대로 돌아와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악의에 차서 헐뜯는가 하면 《국가비상사태》선포니, 《확고한 보복응징태세》니 뛰니 하는 나발을 불어댔다.

군부호전광들도 그 무슨 《선제타격》과 《초도화》를 운운하며 미국

의 핵전략목적기를 끌어들이는가 하면 10월 중순부터는 미핵항공모함을 조선서해와 남해에 끌어들이러 련합훈련을 감행하려고 획책하고있다.

보수패당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은 유엔무대에서 그 무슨 제재에 대해 소란스럽게 떠들어대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지금 보수패당은 미국상전의 발뒤꿈치에 매달려 유엔을 내세워 《언론성명》이라하는것을 발표하는데 이어 《북의 숨통》을 완전히 막기 위한 고강도제재를 취하겠다고 분주히 돌아치고있다.

하지만 보수패당의 제재소동은 자주의 핵퇴성,

정의의 핵우뢰에 질겁한 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유엔무대에서는 공화국을 대상으로 한 여러차례의 《제재결의》라는것이 조작되었다.

그러나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음모의 산물인 《제재결의》를 그때마다 단호히 전면배격하였으며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자주의 길, 선군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줄달음쳐왔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재소동에 매달릴수록 공화국의 핵역제력과 자강력은 더욱 강해지고있으며 이 땅우에는 새인을 경탄케 하는 사변들이 련이어 펼쳐지고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오늘날 공화국의 천만 군민은 세기를 이어오며 반공화국제재와 압살, 침략과 전쟁책동에 미쳐날뛰어온 국악무도한 도발자들을 임의의 순간에 마음먹은대로 타격하고 씨도없이 짓밟개버릴 모든준비가 다 되어있다. 이번에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최종관문까지 통과한 핵탄두폭발시험의 퇴성은 적대세력들의 제재를 비웃는 승리의 측포성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이 다 낱아빠진 제재소동에 더기를 쓰고 매달릴수록 그것은 그들자신의 수치스러운 파멸만을 앞당길뿐이다.

본사기자 리철민

차게 전개되고있는데 대해 사설은 밝혔다.

사설은 온 민족이 미군강점을 끝장낼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군주둔을 원하는것은 분렬이 기생하여 자기의 명줄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중미사대매국 반통일세력들뿐이다.

분렬된 원인도 미군강점에 있고 분렬 71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되지 못하고있는 원인도 미군강점에 있다.

이제는 그 오욕의 사슬을 끊을 때가 되었다.

본사기자

# 제 주제에 핵강국을 어제보겠다고?

얼마전에 있는 북의 핵탄두폭발시험의 성공은 이 행성에 일대 정치해일을 몰아왔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제노라고 날뛰던 미국을 납작하게 만드는 경이적인 사변들을 다 제단으로 일으켜나간 조선민족의 공지와 자부로 감개무량해진다.

이른바 《국제경찰》노릇을 하는 미국에다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뭐라 못하는데 북은 똥이 여의주 굴러듯 줄안에 넣고 쥐락펴락한다.

자존심이 강해서고 힘이 있어서이다.

북의 존엄은 민족의 존엄이고 북의 핵은 민족의 힘이라는것이 다시금 확증되었다.

그 주제에 북과 한판 붙어보자고 흰소리 친다. 전작권도 미국에 섬긴 처지에 《응징》을 하겠다고 한다.

지구상에 핵이 출현한 이래 첫 핵범죄국이고 핵무기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도 어찌지 못하는 북인데 북이 미싸일을 쏘는지, 핵시험을 했는지 미국과 일본이 대주어야 하는 박근혜가 어떻게 《응징》같은것을 할수 있는가. 미국도 인정한 불량품 《싸드》로?

박근혜의 《북핵해법》이라는것은 미국이 노는 모양그대로다.

주둥이로만 《위협》이니, 《응징》이니 재갈거리면서 북을 어찌지도 못하는 미국을 그대로 닭고 미국이 췌치는데 따라

《북핵위협》을 합창하며 《제재》, 《응징》을 따라한다.

제재라는것이 어제오늘 생긴것이 아니다.

하지만 북은 그 제재속에서 핵을 보유했고 수소를 만들고 핵탄두를 폭발시켰다.

그것도 100%자체의 힘으로.

남조선은 엄두도 못낼 일이다.

수조원씩 하는 첨단무기를 제 돈으로 사자고 해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고 핵무기를 만들겠다 하면 핵강권으로 세계 제패를 노리는 미국의 승인부터 받아야 하니 말이다.

그 주제에 북과 한판 붙어보자고 흰소리 친다. 전작권도 미국에 섬긴 처지에 《응징》을 하겠다고 한다.

지구상에 핵이 출현한 이래 첫 핵범죄국이고 핵무기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도 어찌지 못하는 북인데 북이 미싸일을 쏘는지, 핵시험을 했는지 미국과 일본이 대주어야 하는 박근혜가 어떻게 《응징》같은것을 할수 있는가. 미국도 인정한 불량품 《싸드》로?

박근혜의 《북핵해법》이라는것은 미국이 노는 모양그대로다.

주둥이로만 《위협》이니, 《응징》이니 재갈거리면서 북을 어찌지도 못하는 미국을 그대로 닭고 미국이 췌치는데 따라

친미사대가 뼈속까지 물든 박근혜이니 달리 될수는 없다.

남조선인민들이 왜 박근혜를 《닭그네》라고 하는지 푹푹히 알겠다.

암만 말해주어도 모르는 닭머리, 후여— 쫓아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닭고집, 유감스럽게도 그런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올려세웠다.

우리 속담에 닭을 길러 족제비 좋은 일 했다는게 있다.

남조선인민들이 《길러낸》 《닭그네》는 미국에만 좋은 일하는것도 모자라 남조선만이 아닌 민족자체를 해치려 한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을 통채로 삼키려고 널름겨려온 승냥이다.

승냥이의 말을 믿고 승냥이의 힘을 빌어 동족,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승냥이의 아가리에 우리 민족을 떠밀어넣겠다는것이 《닭그네》의 《북핵해법》이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인것처럼 승냥이에게는 호된 불벼락이 명약이다.

미국과 박근혜가 《저주》하는 북핵, 침략세력의 종말을 앞당기는 북의 자위적핵역제력이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명약이 아닐수 없다.

민족만대로 보존하고 지키여갈 민족의 북핵이다.

재로 씨야 동포 김올라지미르

# 미군을 철수시키고 민족분렬의 역사를 끝장낼것을 주장

미국이 1953년 10월 1일 미국남조선 《호상방위조약》을 조작하여 남조선에 대한 영구강점을 꾀하였다고 사설은 폭로하였다.

사설은 미국이 남조선에 북침을 위한 병참기지를 만들고 각종 북침핵전쟁연습들을 정기적으로 벌리고있으며 최근에는 《싸드》배치책동으로 북과 주변나라들을 자극하면서 동북아시아정세를 긴장시키고있다고 단파하였다.

뿐만아니라 남조선정치를 좌지우지하며 민주주의와 경제, 민생을 파란시켰다고 사설은 성토했다.

미국이 단 한문의 주둔비도 내지 않으면서 남조선에 엄청난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있다고 사설은 까뻐하였다.

사설은 미군강점기간 남조선에서는 윤금이, 신흥

순, 심미선 등 수많은 국민들이 미군범죄로 희생되었다고 개탄하였다.

그리하여 지금 《미군떠나라!》는 함성이 울려나오고 경상북도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이 《싸드》배치결정철회와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항의문을 들이대는 등 남조선에서 미군철수투쟁들이 거세

얼마전 서울발 뉴스들을 훑어보니 리재오가 12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4대강사업에 대한 공격은 사실상 친리명박계를 탄압하기 위한 현재 권력의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다는 사실이 눈에 띄었다.

신임 환경부 장관이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이후 하천복조가 악화됐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한데 대한 반박이라고 한다.

리재오는 대학시절부터 리명박과 인연을 맺고 《형님》, 《동생》 사이로 지내면서 2002년 서울시시장 선거와 2012년 《대선》때 《리명박의 야전사령관》으로 불리울 정도로 별사분투하여 《MB (정부) 창출의 일등공신》으로 소문난 사람이다.

때문에 리명박은 권좌에 오른후 그를 《특임장관》으로 임명하였었다.

리재오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과 《한나라당》에서 총무, 사무총장,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원내대표, 최고위원도 되고 여러 차례 《국회》의원도 하고있어 정치적중량감이 있는 인물이다.

이런 전적으로 하여 리재오는 《새누리당》에서 한때 최대계파를 자랑하던 리명박파의 리더(지도 인물)로 되었으며 현재도 남조선정계 특히 보수세력내에서 무시할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있다.

이런 리재오가 현재권력 즉 박근혜를 정면 거론하며 공격하였으니 그 리유가 궁금하다.

원래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실용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에 의해 발족할수 있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성격이 랭혹하고 대물림한 독재적기질

이 체질화되었으며 복수심이 누구보다 강한 박근혜는 제17대 《대선》후 보선출에서 리명박세력의 집요한 인신공격으로 후보자리를 빼앗겼을것을 오늘도 잊지 않고있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이 된후 박근혜는 친리계 사들임과 끝까지 계산하며 무자비하면서도 철저하게 짓밟아버렸다.

올 한해에만도 박근혜는 4월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때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심판하라.》고 앙탈을 쓰면서 리재오를 비롯한 《새누리당》내의 친리명박파를 후보추천에서 거의다 제명해버렸다.

또한 갈수록 힘들어지고있는 민생에 대한 각계의 원성이 높아지자 리명박 《정권》과 긴밀한 유착관계에 있던 롯데그룹

과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부패사를 벌리면서 경제과국의 책임을 MB당국에 넘겨주고있다.

이전 당국이 치적으로 내세우고있는 《자원의교》, 《4대강사업》들도 혹독하게 비방하면서 음모양모로 리명박을 끌랑먹이고있다.

오죽했으면 MB가 박근혜를 두고 《언급하고싶지도 않다.》며 신경질을 부렸겠는가.

리명박을 중풍에 걸려 전신마비가 온 산송장으로 치부하면서 독을 써대는 박근혜의 광기에 이남의 항간에서는 《(새누리당)에서 친리파는 찾을길 없다.》, 《영영 추서지 못하고 사라질것인가.》라는 소리가 돌아갔다.

하지만 지령이도 밝히면 꿈틀한다고 가장 한

심한 전직 《대통령》으로 손가락질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MB대통령》을 배출했던 친리계가 순순히 죽을리 만무하다.

남조선에 있는 친리의 전자메일(통신)에 의하면 《새누리당》의 친리계로 알려진 정병수, 김호영, 전 경기도 지사 문유엔 사무총장, 김무성 문 등은 지금 우병우를 비롯한 현직관료들의 부정부패사건들을 꼬치꼬치 털거하면서 범죄자, 전과자들을 장관으로까지 임명하는 박근혜 《정권》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비난을 내놓고 퍼붓고있다

또 MB의 측근인 라경원이 《새누리당》안에 《포용과 도전》이라는 모임이 나오고 리재오가 중도보수정당을 만들려 하는것을 비롯해 리명박 부하들의 세력확장 움직임

도 본격화되고있으며 리명박본인도 박근혜를 정치꽃내기, 철부지로 내려다보면서 《차기(정권)은 반드시 내 손으로 창출하겠다.》고 내놓고 말하고 다닌다고 한다.

《월간조선》은 그의 한 비서관은 MB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지켜보고있다면 《반기문총장의 경우 리 전(대통령)이 직접 저울질하고 있다. 저울질이라는것은 《대통령》후보로 나섰을 때 당선가능성이 있는가를 따져본다는것》이라고 하였다

최근 리명박의 주변에 사람들이 크게 붐비고있는데 이름을 대면 알만한 정계, 재계의 거물들과 자주 테니스(정구)를 치는 장면이 목격되고있

다는 언론보도도 심심치 않게 들리곤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정치권에서는 《친리계의 움직임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심상치 않다.》는 소리가 울려나오고있으며 한 정치전문가는 MB가 《반박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차기(대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대반격할 의도인것 같다.》고 분석하였다.

결국 현재권력을 비판한 리재오의 방송출연은 친리명박세력의 일사분란한 반박근혜움직임의 한 측면이라는것이 나의 생각이다.

분명한것은 벌어지는 치열한 정치각축전에서 리명박파가 득세한다면 박근혜와 그 패들이 무사치 못할것이라는것이다.

이남의 한 인터넷신문이 14일 《지난 권력 대결 권력의 대결의 끝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것은 눈여겨 볼만 하다.

재중동포 한 려욱

# 지난 권력 대 현재 권력의 대결

## 청와대의 《오또기》

부패를 저질러온 폐륜아이다.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우병우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놓고 부동산거래와 탈세 등을 통해 막대한 재산을 불구였으며 경찰로 복무중인 아들을 먹울알 있는 자리에 돌려앉히는 등 일반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하는 추문을 저질렀다. 무제한한 권력을 그러린 우병우의 부정부패 보따리를 다 파헤치면 어떤 험악한 범죄들이 계속 쏟아져나오겠는지 알수

없을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부패행위가 만천하에 고발되어 남조선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각계층이 당장 사퇴시킬것을 요구하는 우병우를 박근혜가 끝까지 감싸면서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무진애를 쓰고있다는데 있다.

이것은 우병우에 대한 해임과 특별사사를 요구하는 각계층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다.

박근혜패당이 우병우를 이처럼 감싸안고도는 원인은 댜데 있지 않다.

검찰과 경찰, 정보원을 손아귀에 틀어쥐고있는 우병우를 때버리는 경우 그것이 박근혜의 급속한 임기말통치력약화로 이어질수 있고 보수의 재집권에 타격을 받을수 있는 극도의 우려감에 사로잡혀있기때문이다. 이와 함께 우병우를 내칠 경우 배신감을 느낀 그가

어떻게 나오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수 없는것이 바로 박근혜이다.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박근혜가 여론의 못매를 맞으면서도 우병우를 내놓지 않는것은 그에게 약점을 잡혔기때문이다, 《세월》호침몰당시 박근혜의 일정과 행적에 대하여 말짱하게 알고있는것도 우병우라고 하고있다.

결국 박근혜가 우병우를 《오또기》마냥 버티어주고있는것은 어떻게 하나 독재통치의 근간을 유지하여 더러운 잔명을 부지하며 보수의 재집권을 실현해보려는 단말마적목적인것이다.

하지만 박근혜가 우병우를 끼고돌수록 《부패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다.》, 《청렴정치》를 넘볼처럼 외로운 그의 기만적정체가 날날이 드러날뿐이다.

부정부패의 왕초인 박근혜가 청와대에 틀고있어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은 온갖 부패와 전횡의 희생물로밖에 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이 독재통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누리려는 길은 추악한 범죄집단인 박근혜패당을 쓸어버리는데 있다.

본사기자 김철민

## 왜 《안보위기》라령인가

최근 남조선에서 《안보위기》라령이 그칠새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존엄높은 공화국이 핵탄두폭발 시험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에 놀란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오늘날 안보위기에 직면했다.》느니, 《현재상황은 과거와는 다른 지극히 엄중한 안보상황》이라느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였다.

통치위기때마다 늘 꺼내들곤 하는 《안보라령》이어서 놀라울것이 없지만 최근 현 집권자의 《안보위기》라령은 그 폭언성에 있어서 극도에 달하고있다.

실지로 현 집권자는 《실효적대응》, 《끝장내겠다》는 등 리성을 잃은채 게거품을 물고 폭언적인 발언들을 마구 해대고있다.

그러나 현 집권자의 이러한 광증은 이제 더는 헤어나올수 없는 파멸의 나락에 빠진자의 단말마적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남조선은 현 집권자의 반인민적정책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최악의 파국적상태에 놓여있다. 물가와 등락금이 련속 오르고 경제와 민생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실업대국, 자살대국 등 수치스러운 오명으로 불리우고있는 남조선이다. 이로 하여 살인 《정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원성은 하늘에 닿고있다.

현 집권세력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는 지난 4월 《총선》에서의 《새누리당》참패로 이어졌으며 현 집권자의 통치기반을 밀뿌리채 뒤흔들어놓고있다.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현 집권자의 매국적인 《싸드》배치와 《위안부지원재단》설립을 반대한 남조선 각계의 항의투쟁들이 련이어 벌어져 현 집권세력의 멸망을 시시각각 재촉하고있다. 설상가상이라 현 집권자의 총애를 받는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의 특대형부정부패범죄가 드러났다.

총체적으로 사대매국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치가 몰아온 파국적후퇴도 하여 풍전동화의 신세가 되어 극도의 통치위기, 집권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김주혁

이렇게 놓고볼 때 현 집권자가 제창하는 《안보위기》의 막뒤에는 저들의 심각한 통치위기를 수습하고 집권안정을 유지해보려는 어리석은 속심이 깔려있다.

최악의 위기에 빠져 동족을 끌고들며 입이 아프도록 누구도 속지 않을 《안보불안》, 《안보위기》를 떠들어대는 현 집권자의 처지가 가궁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현 집권자가 아무리 비린칭을 돌구어대도 여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그 어떤 요설로도 감출수 없는것이 현 집권자의 죄행이다.

남조선 각계와 여론들은 《현 집권자는 몇달째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문제나 위안부합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안보위기만 강조하는것은 다른것을 덮으려는것이다.》,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면서 강경발언만 한다.》며 현 집권자의 《안보위기》라령을 야유조소하고있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민심의 저주와 규란을 막을수 없으며 무덤으로 가는 길은 멈춰세울수 없다.

김주혁

1945년 10월 10일 아놀드는 《북위 38° 선이남의 조선에는 오직 하나의 정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맥아더의 《포고》, 하지의 《일방명령 및 군정부의 민정명령》에 기초하여 창설된 정부이다.》고 오만하게 뇌까렸다.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인민위원회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남조선인민들의 머리위에 군림한 미군정은 사실에 있어서 미국의 식민지속화정책에 복무하는 칙략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이 일제식민지통치 권력의 재판인 미군정을 조작하여 남조선의 새로운 식민지통치자로 군림함으로써 남조선인민의 예측과 몰락의 력사, 민족수난의 력사가 다시 시작되게 되었다.

본사기자 황진욱

## 집권자의 독단과 전횡을 비난

남조선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기가 집권자의 독단과 전횡을 비난하여 쓴 글이 5일 남조선언론에 실렸다.

글은 박근혜의 《8.15경축사》가 오유, 편향적인 사고와 현실인식, 천박한 력사인식으로 가득하다고 주장하였다.

국민은 《대통령》의 흔계를 들어야 할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의 흔계를 귀

담아 들어야 한다고 글을 주장하였다.

글은 지금도 남조선에서 집권자의 말 한마디에 정책이 순식간에 결정되거나 바뀌기도 한다고 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대통령》소속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를 받아도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것 역시 《대통령》의 심리가 작용하고있기때문이라고 썼다.

본사기자



수십년간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남조선인민들이 바란것은 진정한 자주독립이었다.

그러나 남조선의 미래를 조선사람들에게 맡기는것은 미국의 뜻이 아니었다.

1945년 9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조선사람스스로 맡는것은 필연적으로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할것이다.》고 말한데서 그것은 그대로 드러난다.

이로부터 미국은 1945년 9월 7일 칙략적이고 강도적인 《맥아더포고》를 발표하여 진정한 자주독립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맥아더포고》는 남조선의 통치권이 맥아더

와 그의 권한을 대신하는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에 의해 장악된다는것을 다시 말하여 미국의 군정에 의하여 행사된다는것을 선포한것이었다.

문제로 되는것은 여기서 전범국인 일본에서 반동정부는 그대로 놔두고

미국이 남조선에 준것은(2) 총독부를 대신한 미군정

남조선에서 해방된 인민들의 요구로 수립된 인민정권기관들을 로골적으로 부인한것이다.

《포고》는 군정설치를 선포하여 인민위원회의 합법성을 부인하고 조선인민의 자결권행사를 보일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도 계속 미군정이 공포하

는 《포고, 법령, 규칙, 고시, 지시 및 조례》에 의해서만 통치해나갈것과 일제식민지통치에 복무하던 모든 기구와 그 기능을 계속 존속시킬것을 예견하였다.

이에 따라 미군정은 일제총독통치체계를 그대로

제반 사실들은 미군정이 세계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야만적인 식민지통치기구였던 일제조선총독부통치체계를 그대로 물려받은 식민지통치기구였다는것을 웅변해주고있다.

자료를 의하면 1945년 12월 현재 3만 5 000여명의 일본인들이 남조선에 남아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미군정하의 《중요한 직책》에 있었다고 한다.

미군은 이 강도적인 식민지통치기구를 남조선의 유일한 《합법적권력》이라고 선포하였다.

본사기자 황진욱

# 꽃피는 꿈, 암담한 미래

나는 한 세 세대청년을 대표하고 있다. 이름은 리은경, 취재지에서 알게 된 그녀는 평양시 락랑구역 상하수도관리소 준첩공으로 일하고 있다. 부모들이 일하던 초소를 대를 이어 지켜갈 결심을 안고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학원서를 상하수도관리소파견장으로 바꾼 처녀, 굶은 일, 마른일 가리지 않고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는 보람찬 일에 값 높은 청춘시절을 바쳐가고 있는 그녀 나라에서는 행성을 들쭉이며 성대하게 열린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대회 대표로 내세워주었다.

영광의 대회에 참가한 청년들 가운데는 평양연극영화대학 배우학부에서 공부하는 전주옥학생도 있었다. 몇해전 고난의 행군시기를 형상한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에서 주인공의 딸 송희영을 맡아하는 나날에 진실한 역형상창조를 위해 우정 굽으면서 훈련에 탐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온 전주옥학생. 그 진정이 시련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의 금슬을 울릴줄 어이 알았으랴.

정말 눈물이 나서 못견디겠다고 거듭 눈물을 흘리시며 그의 역형상을 높이 평가하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장군님, 나 어린 새싹을 귀중히 여기시는 자애로운 아버지 품에서 그는 평양연극영화대학 학생으로 자랐고 오늘 뜻깊은 대회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하기에 청년전위들의

대회합장에서 청년대표들은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청춘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워가는 자기들처럼 행복한 청년들은 이상상에 없었고 격정의 목소리를 터쳐냈다.

세상에 돌도 없는 청년강국에서 희망과 활력에 넘쳐 청춘시절을 값높이 빛내여가고있는 세 세대대청년들이 어찌 이 들뿐 이랴.

령도자의 사상과 의지를 심장에 쏘아박고 령도자를 맨 앞장에서 결사옹위해가는 전위투사들도 청년들이고 전세대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영예롭게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중요전구들마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는 맹장들도 청년들이었다.

이렇듯 미더운 청년대군속에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 달려나가 무비의 공격전으로 10년동안에 한 일과 맞먹는 방대한 작업과제를 불과 120여일동안에 해제시키고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3호발전소를 보란듯이 일떠세운 청년영웅들의 기상을 위성에 담아 만리창공에 쏘아올린 청년과학자들,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람홍색공화국기를 창공높이 휘날린 청년체육인들, 처녀의 몸으로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강선망의 《처녀어머니》를 비롯하여 서로 돕고 이끌어 사회와 집단을 위해 한몸 바치는 것을 더없는 미덕으로 여기

는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이 저 하늘의 은하수처럼 수없이 많다.

저 하늘의 별을 따라 젊은 가슴들에 달아주고 싶다고 하시며 청년들을 온 세상이 부러울게 내세워주시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한없이 숭고한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가 있어 조선청년의 영예와 긍지, 존엄과 기개가 온 세상에 힘있게 떨쳐지고있는 것이다.

지구상에 젊음에 사는 생은 많으나 공화국의 청년들처럼 령도자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떠받들리며 청춘시절을 아름답게 수놓아가고있는 북방은 청년들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지금 이 땅에선 가정의 기쁨으로, 민족의 자랑으로 되어야 할 청년들이 돈밖에 모르는 황금만능의 풍조에 물젖어 사회를 쪼먹고 어지럽히는 각종 범죄의 대명사, 사회적 우환거리로 되고있다.》

이 시각에도 공화국과 한지맥으로 잇닿은 남조선에서는 청춘의 삶을 포기한 수많은 청년들에 대한 비판과 절망의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N포세대》, 《3불세대》, 이것은 심각한 생활난으로 사랑, 결혼, 해산, 취업 등 모든것을 포기하고 불안, 불만, 불신속에 사는 20대, 30대청년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날로 악화되는 실업위기는 청년들을 타락시키다 못해 자살의 길로 내몰고있다. 그것이 어찌 청년들

이라 하겠는가. 부모없는 고아마냥 어지러운 생활세대에 빠져 절망과 타락의 악몽속을 헤매이는 남조선청년들의 비극적처지는 전적으로 세상을 잘못 만난데 있다. 꿈을 꿀 자리는 있어도 그 꿈을 꽃피우기에는 자본의 횡포가 너무나 사납고 맹목적인 사회가 바로 남조선사회이다.

청년들을 한몸에 안아 꿈과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펴주고 조국을 받드는 억센 기동, 청년영웅으로 어엿하게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고마운 사회주의 조국과 온갖 사회악속에 청춘의 소중한 꿈이 마구 짓밟혀지는 지옥같은 남조선사회.

과연 어느 사회의 앞날이 더 밝고 창창한 것인가.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의 청년사랑의 정치가 활짝 꽃피는 공화국이야말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청년들이 안겨줄 영원한 삶의 품이다.

본사기자 홍범식

— 《뒤구멍으로 호박씨 까다》

결으로는 암전한척 하면서 뒤에서 은밀히 온갖 짓을 다한다는 뜻이다.

호박씨는 손으로 까기도 어렵다. 하물며 뒤구멍으로 까는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것이다.

— 《을씨년스럽다》

날씨가 분위기가 스산하고 쓸쓸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다. 을씨년들은 타락시키다 못해 자살의 길로 내몰고있다. 그것이 어찌 청년들

## 인간지옥에서 울리는 소리

### 영등포 쪽방촌 사람들

지난 7월 12일 오전 11시 영등포역 6번 출구 옆 쪽방촌을 찾았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지역의 수온주가 섭씨 30도를 넘은 날이었다. 좁은 골목길에 스테트지붕을 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골목 양옆으로는 다시 더 작은 골목이 있었다. 파리가 웅거거리며 날아다니는 골목에선 콧물과 역한 냄새가 풍겼다. 날씨가 더운 탓인지 문을 닫아놓은 방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한 쪽방에 들어갔다. 텅 빈 쪽방은 후끈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 자마자 이내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언뜻 보기에 5도 정도는 높을듯 했다. 무덤고 습한 쪽방보다 먼저 눈에 띄는 방의 크기다. 대학가의 고시원이 좁다는 것을 표현할 때 흔히 두 팔을 벌리면 량쪽벽면이 닿는다고 한다.

쪽방은 그것과 다르다. 이곳에서는 팔 하나도 제대로 펴수가 없다. 천장에 머리가 닿아 똑바로 일어 설수도 없다. 누워서 팔의 위치를 바꾸려면 팔을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들어 움직여야 한다. 성인남성 한명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더 들어갈 공간이 없다. 방이 아니라 《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쪽방》은 말그대로 《조개여 쓰는 방》이라는 뜻이다. 집의 한부 분인 방을 또 조개 방을 만들었다. 조개 방에 한 명씩 들어가 잠을 잔다. 1997년 외환위기이후 널리 알려진 쪽방은 도시빈민의 마지막잠자리로 기능해왔다. ... 영등포구에 따르면 7월 현재 영등포 쪽방촌에는 총 67동의 쪽방건물이 있다. 방 개수로 따지면 540개 정도이다. 여기에 사는 인원은 602명으로 이중 약 500명이 상시거

주자다. 나머지 100명은 매일 방세를 내며 오가는 일시거주자다. 50대이상 남성이 가장 많고 60대이상 고령자가 다음을 차지한다. 여성도 60대이상의 고령자가 많다. ... 여름철 쪽방촌사람들에게 가장 고역은 폭염이다. 외부벽면에 접한 쪽방에는 창문시늬를 한것이 있지만 그나마도 그물코가 촘촘한 방충망에 가려 통풍이 되지 않는다. 날이 더우니 서로 얼굴 붉힐 일도 늘어났다. 더운 방에 다닥다닥 붙어살다보니 마찰이 빈번하다. 제대로 씻을 공간도 없다. 목욕은 공용공간의 수도꼭지를 리용해서 한다. ... 도시빈민의 마지막보금자리 《쪽방》에서도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몸짓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남조선잡지 《주간조선》 2016년 7월 24일호에서 전재)

그러므로 이 말은 나라를 잃은 민족의 슬픔과 울분을 차고 넘친 을사년의 환경을 표현하는 과정에 변형된 말이다.

## 우리 말 몇가지의 유래

— 《거덜이 나다》

나 살림도 흔들리면 허물어진다는 의미에서 흔히 《거덜이 나다》고 표현한다.

— 《랑때보다》

바라던 일이 안되어 기대에 어긋났거나 바로 잡을 길이 없게 된 상태

거덜은 비록 신분이 낮았지만 지체높은 고관대작들을 직접 모시다니니 우월감을 표현하는 과정에 변형된 말이다.

나 살림도 흔들리면 허물어진다는 의미에서 흔히 《거덜이 나다》고 표현한다.

— 《랑때보다》

바라던 일이 안되어 기대에 어긋났거나 바로 잡을 길이 없게 된 상태

를 가리키는 말이다. 랑과 패는 전설에 나오는 동물이다. 랑은 뒤다리가 없고 패는 앞다리가 없으므로 서로 공생해야 살수 있으며 마음이 맞지 않으면 꼼짝없이 끊어죽기 마련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도모하였을 때 쪼이거나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랑패보기 십상인데...》라는 표현을 쓴다.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 허철호

## 단편소설

### 불을 부르는 소리 (14)

글 오송심, 그림 김윤일

벌써 몇번째인가. 이해 불에만 해도 세번째... 평생 외본적 없던 이 땅 끝마을을 그동안 립하영은 셀수 없이 찾았다. 정녕 잊을수 없는 곳이었다. 사무치는 그리움에 마음이 앞서 달리는 곳이 고향이라고들 한다. 립하영에게 팽목항은 고향처럼 되어버렸다. 고향길은 긴 뾰족한 자살의 길은 고행이었다. 운명적인 길을 걸었다. 자욱자욱 피가 고이는 원통한 이 길을 립하영은 진실을 바라는 눈물겨운 탄식으로, 차년 치는 비에 무릎보다 마음에 퍼미는 《삼보일배》로, 인정의 불을 부르는 애달픈 기원과 한맺힌 절규로 이어왔다.

가만있으라는 한마디로 수백의 꽃망울들을 수장시킨 청와대의 악한들이 가슴찢기는 아픔에 모멸하는 유가족들에게 돈 몇푼 췌내 깔리며 찢소리 말고 가만있으라고 위협을 하는 행실이 립하영을 더는 참을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내 아들을 살려내라!》

몰인정한 위정자들탓에 아직도 차디찬 바다속에 한을 품고 잠겨있는 아들

애를 불러 불러 립하영은 끝없는 진도길에 몸과 마음을 강그리 바칠 심산이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선체인양요구에 립하영은 목숨을 걸고 한생을 건 것이다.

그 길에서 립하영은 알았다. 배신의 서막을 열 어제 낡은 추억을 추악한 일개인으로 중요하며 무시해버린 자신은 몽매한 인물이었다. 그런 추물들을 배설하는 사회악의 근원을 투시하지 못하였다. 썩은 개체들을 배태하고 겹겹이 둘러싸서 보호중식시키는 이 사회의 근본을 체념하고 저 혼자 오달리게 살면 그만인 줄 여긴데 극도의 우둔함이 있었다. 누워서 침뱉는 격으로 이제 그 화가 자신에게 떨어졌다. 악을 외면할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꿰뚫어보아야 하였다. 그래서 아이 송두리채 들어내쳐야 아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다. 립하영은 뒤늦게나마 이것을 심장에 쏘아박은 것이다.

립하영은 인왕산마루에 올라 《푸른 집》을 뚫어져라 내려다보았다. 헛된 기대에서 어이없게도 우

상으로 쳐다보았던 괴물이 등지고있는 악의 본거지! 저기다! 바로 저기서 이 땅을 어지럽히는 온갖 위선과 기만이 쏟아져 나온다. 립하영은 내심의 절규로 의지를 굳혔다.

(박근혜! 찍하면 물은 굶을 따라 흐른다는 말만 외우면서 뒤말은 왜 모르는척 해?! 죄는 지은데로 간다는것은 력사의 진리이거늘. 아무런, 그렇다 마다.)

오늘도 립하영은 아들애를 마주하듯 진도바다를 눈썹리가 시큰하도록 바라보고 섰다. 슬픔을 넘어 결연한 의지가 비칠 얼굴을 번쩍 들고 아들애와 마음속대화를 끝없이 나누었다.

...정현아, 너 약속했지? 금요일엔 꼭 돌아오라고. 그래그래, 이 하루도 엄마에겐 금요일이구나. 얼마전 네 생일날 엄마한테서 어찌든 반쯤 버려진 비를 만들었다. 그걸 여가 부두가 란간에 정성껏 매놓았어. 우리 봄바람, 정현이 사랑살랑 불어와 이 엄마를 반기라고 말이야. 헌데 여적 그대 로 팔랑거리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작년 겨울까

지 그 잘난 《국회》 앞 잔디밭에 노랑게 가득 꽃아 놓았던 《진실의 바람개비》를 생각하면 참 허망하기만 하다. 슬픔에 쓰러지는 유가족앞에 나타났던 것은 《근혜차벽》 뿐이었고 인파를 쓴 괴물들은 못 본척 바람개비를 지나쳐버렸다.

정현아, 외로워말아. 그 새 너에게 술한 가족이 생겼어. 함께 슬퍼하고 함께 노여워하면서 모진 이 세상을 결단코 끝장내자



고 힘을 주는 착한이들이란다. 가족도 친척도 아닌 고마운 사람들이 널 대신해서 어깨를 받쳐주며 한 길을 걸어 엄마도 외롭지 않구나.

무대를 타던 나도, 가게를 보던 경주 엄마도 너희반 애들 부모모두가 생애를 걸어치웠어. 명예는 해서 무얼 하고 돈은 벌어 댕에 쓰겠니? 다 너희들

까지 선사하더라. 《쓰레기시행령》을 폐기하고 진실을 인양하라라는 엄마네 절절한 요구가 참사를 《사고》라고 떠벌이는 《푸른 집》의 위선자들 비위에 거슬렸나봐.

살릴수 있는 너희를 등지고 나 몰라라 아닌보살한 나쁜 놈들 미운 꼴 더는 가만두지 못하겠어. 너희들이 물에 잠기던 작년 4월 16일에 종적을 감췄던 《푸른 집의 악녀》는 올해에도 꼭 그날 대양 건너로 꼬리를 사렸는지. 유가족의 통곡이 듣기 싫다는 뺨소니행각에 모두 침을 뱉었어. 동족보다 남이 그렇게 좋은가부야. 미국 상전의 상처따위에 혼겹하여 야단법석을 떠는 국적불명의 사대미친증환자가 전업력을 더 시위하기 전에 빨리 결판을 내야 해.

엄마 절대 지지 않아. 내가 이 가슴에 살아있는 한 열심히 싸울거야. 선이 죽기를 기다리는 악의 땅, 목줄이 끊기워도 항변은 고사하고 숨겨야 할 리유조차 물으면 안되는 이 땅의 무권리한 인생모두를 위해 함께 싸워이길거야.

가만있었다 빼앗긴 봄엄마네가 모두 찾아올레다. 가슴에 응어리진 한이야 풀리랴만 하나하나 소중히 합쳐서 인정으로 따스한 봄나래를 꼭 안아줄게, 믿어줘!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 어디선가 바람이 분다. 정현의 사진우에 들렀던 노란 댕기, 그 댕기로 만든 희망의 리본이 립하영의 앞가슴에서 맥뭉듯 세차게 파닥거렸다.

썩— 썩썩, 썩— 처절썩...

와닿았다가는 물러서고 물러섰다가는 다시 달려오는 파도소리가 귀익은 목소리를 불러왔다.

《엄마는 봄별, 나는 봄바람!》

쉬임없이 정을 속삭이는 아들의 목소리였다. 오래간만에 마음의 평온을 되찾은 립하영은 물기도는 두눈에 미소를 띠었다.

립하영은 입가에 손바닥을 가져다대고 목놓아 불렀다.

《정현아—》

더이상 힘없는 눈물의 하소가 담긴 처량한 부름이 아니었다. 불을 부르는 소리였다. 인정의 동토대에 기어올라 봄을 안아올 목숨같은 의지이고 약속의 웨침이었다.

누가 바다에는 메아리가 없다고 했던가. 망망한 바다우로 멀리멀리 울려 퍼진 립하영의 피라는 부름은 썩— 썩— 화답하는 파도소리며 방방곡곡에서 터져나오는 분노의 함성들과 어울리고 합쳐지면서 거대한 진폭으로 창창 메아리쳐갔다.

(끝)